

CLUBD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Autumn | 2021



클럽디 거창에서 바라본 풍경



골프 성수기 맞아 ‘클럽디(ClubD) 거창’ 새 단장 완료…“고객 맞이 분주” 코스 퀄리티 개선·리무진 카트·테니스장 등 고객 서비스 강화…“차별화 서비스 지속 선보일 것”

경상남도에 위치한 유일한 27홀 정규 퍼블릭 코스인 클럽디(ClubD) 거창이 본격적인 골프 성수기를 맞아 새 단장을 완료하고 고객 맞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상화된 코스와 더불어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기를 끌면서 골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인 (주)이도(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네 번째 골프장인 클럽디 거창의 코스 퀄리티 개선 및 차별화 서비스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연일 ‘풀부킹’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클럽디(CLUBD)’의 ‘D’는 퍼블릭 골프장의 최종 완성 또는 종착지인 ‘Destination’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Differentiation’을 뜻한다. 기존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차별화된 즐거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감각을 지닌 고품격 퍼블릭 골프장을 선보이겠다는 경영 철학이 높아있다.

클럽디 거창 27홀의 전장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9,588m(10,485yd)로 블라인드 홀이 없는 장점이 있다. 코스별로 EAST코스 (3,265m, 3,570yd)는 시원한 장타를 원하는 골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WEST 코스(3,117m, 3,408yd)는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코스로서 곳곳에 숨겨진 장애물을 극복하며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SOUTH 코스(3,206m, 3,506yd)는 시원한 비거리를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홀마다의 느낌이 전혀 다른 흥미로운 코스로 디자인됐다. 클럽하우스 및 라커룸 등 편의시설은 현대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여성 고객을 위해 세련된 파우더룸도 설치됐다. 또한 테니스장 및 각종 이벤트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커뮤니티’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테니스장은 거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무료 레슨 및 이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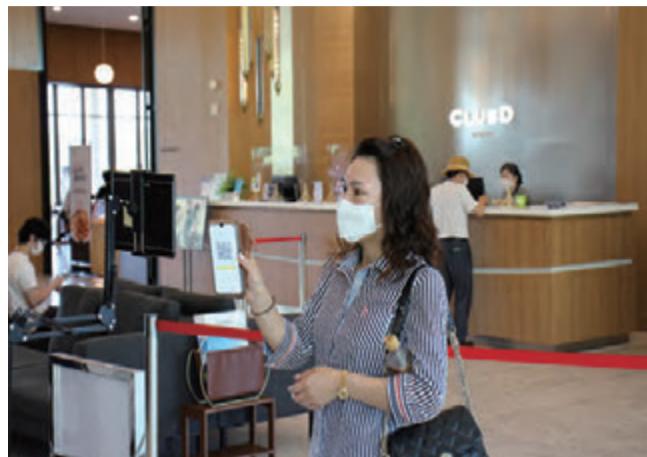
클럽디 거창은 거창IC에서 약 15분 거리로써, 대구, 창원에서 1시간이 걸리는 편리한 접근성도 갖췄다. 한편, 클럽디는 현재 경남 클럽디 거창을 비롯하여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 보은(18홀), 속리산(18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클럽디 금강(36홀) 등을 포함하여 전체 4개 사업장, 총 99홀 규모를 전문 운영 관리하고 있다. 특히, 매년 경기 파주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의 서원힐스와 협업하여 최대 규모의 여성 골프 대회 개최 등 국내 골프 문화를 지속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훈(주)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골프장에 투자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원하는 소유주들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 된 골프장 밸류업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며 “골프 꿈나무 육성, MZ세대를 위한 골프 캠페인 등을 통해 골프 문화 선도 및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 | ClubD MAGAZINE



국내 최대 규모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내년 연기

코로나19 지속되는 가운데 선수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안전 고려
…“차별화된 골프 문화 선도 지속 강화할 것”



숨어있는 여성 아마추어와 프로 골퍼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인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이 아쉽게 내년으로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아마추어 및 프로 골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2022년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10대 코스로 선정된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의 명품 퍼블릭 ‘서원힐스’와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인 (주)이도(YIDO)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을 공동으로 올해 7월부터 진행해 왔다.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은 오는 7월 15일부터 스트로크 방식으로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CLUBD) 보은(80명)과 클럽디 속리산(80명), 전라북도 익산 클럽디 금강(80명), 경상남도 거창(80명) 등 4곳에서 각각 예선이 진행됐다. 또한, 서원힐스의 예선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은 코로나19로 지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당한 삶을 원하는 여성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상금 규모는 4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에 이어 골프장 주최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기존 여성아마추어 대회와 달리 프로와 아마추어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색적인 대회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예선 및 결선을 치러 총 32명을 선발한다. 또한, 선발된 32명에게는 통합 왕중왕전 1라운드에 진출하는 자격이 주어지며, 스트로크 방식을 통해 총 8명의 2라운드 진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대망의 왕중왕전 2, 3라운드 및 결승은 서원힐스에서 진행되며, 경기 방식이 팀 매치플레이로 변경돼 경기의 박진감과 재미가 더욱 늘어난다. 프로와 아마추어 각각 1명씩 팀을 구성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진행하고, 8강과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조연희 프로가 우승 김도하 프로 및 3위 마소라 프로가 차지했다.

통합 왕중왕전 최종 우승팀에는 6,000만 원 이상의 상금과 시상품이 주어진다. 주최 측인 서원힐스와 클럽디는 골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내년에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글 | Clubd MAGAZINE





티샷부터 신중해야 하는 시그니처 홀 클럽디 거창 'SOUTH 9번'

사우스 코스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9번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가장 어렵게 구성된 홀입니다. 티샷 볼 낙구(150m)지점이 콜라병을 연상 시키듯 페어웨이 폭이 급격히 좁아져 티샷부터 클럽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세컨 샷은 그린 앞 벙커를 피해 그린 좌측 끝을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트 티 기준 391m(레드티 331m)파4홀이며 그린 뒤 여유 공간이 10m 이내라 짧게 온 그린 하여 오르막 퍼터를 하시면 좋은 스코어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코스 제원: PAR 4홀 화이트 티(391m), 레드 티(331m)
코스 기록: 이글 3회 / 버디 336회 / 파 10,664회 / 보기 8,231회 / 더블보기 7,990회

글 | 박희정 클럽디(ClubD) 거창 경기 팀장



단차가 있는 2단 페어웨이로 다양한 공략이 가능한 클럽디 보은 'EAST 9번'

클럽디 보은 바깥쪽 코스의 마지막 홀로 티잉 에어리어에 서면 페어웨이의 좌·우 단차가 매우 특색이 있는 홀로서 티샷 방향 설정이 세컨드 샷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홀입니다.

IP지점까지 살짝 오르막 경사가 있으나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며 우측은 자연림으로 조성되어 분실구의 위험이 있음으로 페어웨이 좌측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 앞의 깊고 넓은 러프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크게 심호흡하고 마음의 평온이 올 때 그린의 깃대를 향해 세컨드 샷을 하면 가볍게 투온이 가능한 홀입니다. 비교적 짧은 PAR 4 홀이지만 두 얼굴의 페어웨이가 시각적으로 도전과 재미를 주는 홀입니다.



코스 제원 : PAR 4홀, 316m(화이트 티), 253m(레드 티)
코스 기록 : 이글 51회 / 버디 6,463회 / 파 113,278회 / 보기 92,565회 / 더블보기 38,621회

글 | 허현숙 클럽디(ClubD) 보은 경기 팀장



우측 해저드가 위협적인 클럽디 금강 'WEST 1번'

클럽디 금강의 WEST 1번 홀은 금강에서 불어오는 변이 바람에 영향을 받는 슬라이스 성 홀로 우측의 해저드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전장 363m의 PAR 4 홀로 티샷 시 좌, 우의 벙커를 주의하면 좋은 스코어를 노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벙커까지는 220m로서 이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세컨드 샷의 경우 그린 좌측의 벙커, 우측의 해저드를 피하는 신중하고 정교한 샷이 필요합니다.



코스 제원 : PAR 4홀, 363m(화이트 티), 310m(레드 티)
코스 기록 : 이글 9회 / 버디 2,467회 / 파 74,762회 / 보기 55,79회 / 더블보기 34,802회

글 | 최은숙(ClubD) 금강 경기 마스터



샷 밸류를 즐길 수 있는 정교한 홀 클럽디 속리산 'WEST 4번'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클럽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샷 밸류 홀입니다. 경기 운영상 드라이버 사용을 금지하는 WEST 4번 355m PAR4홀입니다.

티샷이 부담이 되는 듯 느껴지지만, 캐디의 전문 어드바이스를 잘 이해하면 흥미로운 홀로 반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홀입니다.

슬라이스 구질의 골퍼는 정확한 세컨드 샷이 요구되는 핸디캡 1번입니다. 그린 주위가 좁은 편이며 빅 홀컵이 설치되어 있어 동반자 중 1명만 버디를 세이브해도 순살 닦강정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버디 이벤트홀입니다.



코스 제원 : PAR 4홀, 355m(화이트 티), 295m(레드 티)
코스 기록 : 홀인원 1회 / 이글 77회 / 버디 3,693회 / 파 34,496회 / 보기 74,606회

글 | 남승미 클럽디(ClubD) 속리산 경기 팀장

구병산과 어우러진 충북지역 명문 골프장 '클럽디 속리산' 레스토랑



속리산IC에서 5분이면 도착하는 클럽디 속리산은 충북 지역에서 퍼블릭 딥지 않은 명품 골프장으로 유명하다. 속리산과 구병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어우러진 클럽하우스는 웅장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외관을 갖췄다. 그래서 인근에서 괜찮은 골프장을 가고자 하는 골퍼들이 꼭 가고자 하는 골프장이다. 클럽하우스 2층에 마련된 레스토랑 역시 골퍼들의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클럽디 속리산의 음식은 '김윤호 조리장'이 담당하고 있다. 김윤호 조리장은 경력이 약 18년의 베테랑으로 VIP 및 각종 행사를 주관한 경험이 많다. 지난 2017년에는 삼성웰스토리에서 내부적으로 열린 조리대회에서 3위에 입할 정도로 실력자다.

김 조리장이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맞아 골퍼들을 위해 선보인 메뉴는 클럽디 속리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복 갈비낙지 전골'이다. 전복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건강식으로 많이 쓰이는 식품이며, 낙지 역시 보양식으로 인기 만점인 음식이다. 김 조리장이 전복 갈비낙지 전골을 추천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골프 성수기를 맞아 골퍼들의 체력 회복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항아리BBQ'는 코로나 19로 실내 활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개발한 메뉴다. 클럽디 속리산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항아리 BBQ는 레트로 감성과 함께 잠시나마 캠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발됐다. 참나무의 향과 함께 파김치, 표고 버섯, 샐러드, 마늘 등과 함께 곁들여 느끼함을 없앨 수 있도록 했다. 골프 안주로 제격인 메뉴로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황제짬뽕' 역시 속리산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메뉴로 시원한 국물과 함께 감칠맛 나는 해산물로 환상의 맛을 제공하며 단품 식사로 제격이다. 글 | ClubD MAGAZINE



INFLUENCER INTERVIEW

"캐디로 변신해서 골프의 재미를 더 드리고 싶어요!" ...참여형 유튜브 개설한 '임박TV' 영화배우 임형준·개그맨 박성광

대중화와 더불어 최근 대세로 자리를 잡은 방송 콘텐츠가 바로 '골프'다. 지상파 및 종편 등 방송사는 물론 유튜브 등 개인 콘텐츠까지 골프가 꽉 잡았다고 할 정도로 인기다. 특히 김구라의 빠꾸기TV, 흥인규TV, 변기수 골프TV, 김국진의 거침없는 골프 등 유튜브 채널들은 웬만한 방송 프로그램 인기를 능가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캐디' 역할을 통해 참여형 골프 콘텐츠로 채널을 개설한 영화배우 임형준, 개그맨 박성광의 임박TV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을 만나봤다.

ClubD: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임형준(이하 '임'): 임박TV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영화배우 임형준입니다.

박성광(이하 '박'): 안녕하세요! 진지한 역할을 담당한 개그맨 박성광입니다.

ClubD: 요즘 두 분 근황이 어떠신지?

임: 저는 드라마 10월 1일까지 방영하는데, 어제 끝났고요. 유튜브 촬영 및 다음 작품 준비 중입니다.

박: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ClubD: 새롭게 골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다고요?

임: 요즘 다 개인방송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이 각자 콘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월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오래 지구력 있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골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활동이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분이 채널은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나 혼자 해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흥미를 있는 것 아닌가 주저했었는데, 좋은 기회에 좋은 동생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 저도 개인 채널을 하나하고 싶었는데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오래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골프로 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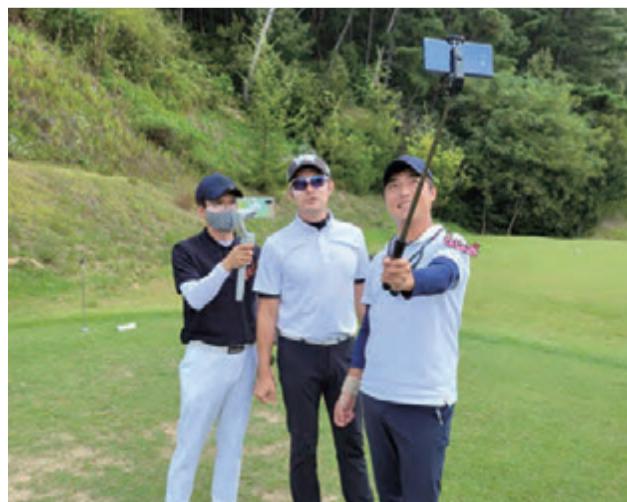
ClubD: 골프 말고 다른 유튜브도 생각했었나요?

박: 야구도 해볼까 생각했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골프가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ClubD: 유튜브 방송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임: 일단 콘셉트가 우리가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캐디로 서포트를 하는 채님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고, 꽤 힘든 일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라운드하는 채님이 아니고 보는 것이니까 알게 모르게 배워가는 것도 있고요. 채널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우리 채널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단계라 열정만큼은 빠꾸기 못지 않습니다.

박: 쉽지 않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도 아직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lubD: 비용적인 부분에서 쉽게 만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임: 일단 보는 사람으로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관한 생각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야 보는 처지지 제작 과정이나 이런 건 모르겠잖아요. 가끔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아 그럴겠구나!' 하고 바로 이해를 하긴 해요. 골프 치러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촬영하다 보면 3~4 팀을 잡아야 하고, 그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아 맞다! 그렇겠다!', '돈 많이 들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변의 지원이 없으면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박: 구독자분들도 유튜브를 자주 보시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겠구나 이해하실 것 같다는 해요. 공 날아가는 촬영이나 여러 장면을 보면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돈 많이 들 것이라고 제 주변에서는 생각하시더라고요. 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처럼 워낙 예쁘게 찍는 곳이 많으니까요. 클럽디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 했을 것 같아요. 클럽디 대표님 감사합니다!

ClubD: 프로그램 콘셉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대결을 한다고 듣긴 했는데요?

임: 우리가 캐디다 보니까 나오시는 출연자를 항상 모셔야 하잖아요. 골퍼 분들이 여러 사람하고 골프를 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과 관련된 부분을 부드럽게 대화를 하시는데, 골프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강소 기업이나 조그만 사업업 하시는 분들하고 도움이 되는 홍보로 타이틀이 아닌 타이틀을 걸고 시합을 붙이면 어떨까? 라는 출발에서 했어요. 아직은 많은 분을 모시지 못했는데요. 아직은 우리 채널을 나오시기에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흥보가 필요하신 분들 모셔서 골프도 치고 그들의 어떤 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현재 그런 콘셉트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ClubD: 두 분은 원래 예전에 좀 친하셨나요?

임: 임박TV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라운드도 오늘(인터뷰 날)이 처음이예요. 일하는 분야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실 많은 연예인분이 있지만 같이 시간 맞춰서 골프 라운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우들은 그래도 조금 기간이 있거든요. 작품하고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 두 달 시간이 있어서 몰아서 라운드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들이 있으시고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골프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 시간 맞추는 것이요. 프로그램을 이성애 아나운서가 임박TV를 기획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나운서와 절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잘해보려고 합니다.

ClubD: 임형준 씨랑 같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임: (제가 없을 때 이야기를 해야죠!)

박: 저는 처음 만났을 때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서로가 워낙 TV에서 보기 때문에 초면인데도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분도 아니시고요. 원래 알던 사람처럼 원래 방송 같이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림도 없고. 또 워낙 예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장난치면 잘 받아주시고, 재밌어요.

임: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방송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색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ClubD: 주변에 연예인분들이나 지인들이 골프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임: 일단 우리 콘셉트 듣기 전에는 다들 '또 골프 유튜브 한다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지겹다는 듯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뜻밖이 좋았어요. 한 예로 김구라 씨는 경우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분이고, 장점보다는 단점부터 찾는 분이신데요. 우리 콘셉트 이야기했을 때 '단번에 우와!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채널



이거든요. 지금이야 구독자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어떻게 보면 정상에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처지인데, 그래도 골프 유튜버들이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반갑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딱 이야기 듣고 저도 김구라 씨 반응에 놀랐어요. '오! 그거 괜찮다! 콘셉트 잘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괜찮긴 하구나!'라고 생각했고,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 한 번, 두 번 찍고 '아! 이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괜한 것 시작한 것 아닐거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혼자 하는 것이면 나만 안 하면 되는데, 성광 씨도 있고, 성배 씨도 있고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시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시고요.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되는 것 같아요.

ClubD: 어떤 포인트에서 된다고 느끼셨는지요?

박: 남들하고 차이점이 있죠.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분들이 나오는 차이점이 있고요. 연예인들이 캐디를 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치는 것 사실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잘 치는 모습을 보는 거면 모르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이 나와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 나도 저기 가서 라운드하고 싶다!' '연예인한테 캐디 서비스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저기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기대감. 나도 저기 가서 라운드 해야지, 그러니까 봐야지 하는 참여형 유튜보이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곧 우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ClubD: 두 분 골프 실력을 어느 정도 되실까요?

임: 클럽디 골프장이 오비가 많아요? 오늘은 뭐 80대 후반 칠 것 같은데요. 보통은 80대 중후반 정도 친다고 이야기해요. 딱 한 번 70대 기록했습니다.

박: 저는 90대 초반 정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 친 건 83타였어요.

ClubD: 클럽디는 어떠셨어요?

박: 저는 속리산 2번, 보은 2번 가 봤어요. 전라북도 익산 클럽디 금강하고 경남 클럽디 거창은 아직 못 봤고요. 저는 우선 음식도 정말 맛있고요. 클럽하우스 골프장 들어와서 보면 깔끔하고 아주 예쁘고요. 잘 돼 있어서 좋았고요. 클럽디에서 제공해주는 라운지 서비스 라운지도 정말 좋았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요.

임: 캐디로는 몇 번 해봤지만 저는 클럽디 라운드가 오늘 보은이 처음인데요. 성광 씨랑 이야기했을 때 들어왔을 때 클럽하우스가 깔끔하게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골퍼들이 들어올 때 해외여행 같 때 와 인천공항 가면 설레듯이 골프 치는 사람은 클럽하우스 보이면 설레고 하는데, 그런 설레임을 더 자극하는 신경을 쓴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골프장 운영을 여러 곳을 하다 보니 확실히 서비스도 차이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ClubD: 향후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골프 유튜브 톱 3위 안에 드는 것이죠. 골프 채널 중에서도 빠꾸기, 흥인규 이어 세 번째하고 싶습니다. 3번째는 많은데요. 어쨌든 톱 3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안에 달성하고 싶습니다.

박: 우리 채널 안에서 대회 한번 하는 것이요. 임박TV 골프 대회 한번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다 캐디로 변신시키고요. 일반 구독자분을 초청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4팀 정도로 해보고 싶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ClubD MAGAZINE

ESG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돌아온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착한 기업의 백기사이자 친구로 동반 성장 할 것”



라이프자산운용 이채원 의장

박선주 사원(이하 ‘박’) : 저는 입사 3주차 신입 박선주입니다.

이채원 의장(이하 ‘이’) : 안녕하세요! 입사 33년차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투자그룹에 88년에 입사해서 33년 근무를 했고요. 작년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직을 마지막으로 사임을 하고 지금 2월 7일부터 창업을 해서 라이프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 30년간 몸담고 계셨던 언론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많이 아쉽지 않으셨어요?

이 : 많이 아쉽죠. 가장 아쉬운 점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성장주 열풍 때문에 인테크 관련된 것도 있었고, 최근 6년간 가치주 펀드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운영하던 신영 펀드 시리즈도 성과가 6년간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게 돼서 고객분들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한국투자그룹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죠. 다행히 제가 그만두고 나서는 가치주가 급등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 가치주 이야기 하셨는데요. 가치주의 시대가 다시 올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 예, 그렇습니다. 항상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에서는 성장주 사이클이 있고. 가치주 유리한 국면에서는 가치주 사이클이 있는데, 한 30년전을 돌아보면 그런 사이클이 존재했어요. 1999년만 해도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기술주, 통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를들면 KT와 같은 주식들이 20만원까지 올랐었고요. 지금 3만 몇 천원 가고 있는데요. 많이 하락이 됐고요. SK텔레콤도 50만원 가던 것이 지금 30만원 중반에 있는데요. 이런 것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인데요. 3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강력한 성장주 사이클이 1999년, 2000년 상반기까지 있었고. 그 이후로 들 이켜 보면 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 오랫동안 가치주 사이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금리 저성장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작년말까지 6년간 강력한 성장주에 유리한 사이클이 도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작년 말로 어느 정도는 마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치주 사이클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첫째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고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장주는 6년간 엄청나게 올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주들 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은 과거 6년간 성과가 굉장히 부진했던 상황이고요. 갑이 너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주가 유리한 이유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작년에 코로나 19 이후에 미국의 국고채 10년 금리가 심지어 0.3%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1.3% 정도 하고 있어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제로 금리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정도로 저금리 시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성장주가 더욱 각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급격하게 올라가면 좋지 않지만 2~3년에 걸쳐서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는 1%대 후반이나 2% 초반으로 무리없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치주에 유리한 국면이 오는데요. 또나니 저성장 때는 성장주가 유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이 둔화되면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가치주가 탄탄할 것 같지만 의외로 성장주가 더 올라요. 왜냐면 성장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쓸리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기업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이 더 각광을 받아야요. 이런 현상이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주가가 영원히 오를 수 없고, 이런 기업들도 어떤 산업이든 기업이든 영원히 성장할 수 없고요.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여성장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국면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팔 우물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여있는 물을 정화해서 마셔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성장을 못했지만 어쨌든 매년 돈은 벌고, 자산을 많이 쌓은 기업들, 크게 배당은 하지 않지만 M&A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않지도 않고요.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이런 국면을 보면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해지고, 적대적 M&A, 공개매수, 소액주주들의 배당 압력이 강해지고요.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럴 때 기업 지배구조 펀드나 M&A 펀드, 행동주의 펀드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치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유리하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 : 첫 번째 이유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discounted cash flow, DCF)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할인율을 이자율로 쓰다보니까 금리가 1%면 1로 할인을 해야되고, 3%면 3으로 할인을 해야하니까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져요. 다른 이유를 들어보면요. 모든 자산에는 일드(yield)라는 것이 존재해요. 수익률과는 조금 달라요. 1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이 되면 100% 수익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드, 이익률이라는 개념은 1년 동안 이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내 손에 현금을 갖을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에요. 기대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드의 역수가 PER(주가수익비율)인데요. 시가총액이 500조인데, 이익이 50조가 난다. 그러면 일드가 10%이죠. 이익을 창출하는 힘이. 그런데 그것의 역수가 PER이니까 10배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 PER 평균은 17~18배. 우리나라 13배, 미국은 20% 정도돼요. 성장주 PER은 50배, 100배 돼요. 그런데 PER 50배라면 일드가 2%는 되는 것이잖아요. 2%도 되고, 배당도 하고요. 성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1%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주의 이익이 높으니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금리보다 이익률도 높고, 성장도 하고, 배당도 하고 내가 뭐 어때서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박 :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 그런 논리가 약해진다는 말씀이겠네요?

이 : 맞습니다. 금리가 3%가 된다고 가정하면 채권의 PER은 1% 일 때 PER이 100배잖아요. 3%가 되면 PER이 33배가 되고요. 그런데 채권의 PER이 33배면 주식의 적정 PER은 반 정도인 16.5배인데요. 그런데 성장주의 PER이 50~100배라는 것이죠. 성장주가 엄청 비싸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주들을 보면 PER 5배 정도 되는 일드가 20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평가 돼 있다고 봐야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박 : 그럼 실제로 가치주가 올라가고 있나요?

이 : 보이죠. 문제는 그런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안돼요. 금리가 10%면 굳이 주식할 이유가 없죠. 은행 이자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향후 2~3년에 걸쳐서 금리가 2% 수준 정도만 가주면 어느 정도 가치주가 유리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 : 운용사에서 사모펀드로 오셨는데, 고민이 되시지는 않았나요?

이 :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 공모와 사모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공모의 경우 모집하기가 용이하고, 널리 대중적으로 큰 규모로 펀드를 레이징을 할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40인 이하로 제한돼 있고, 최근에 엄청난 대형 스캔들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시장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엄청 풍부하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소수를 대상으로 철학이 맞는 분들과 비즈니스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사모펀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행동주의, ESG 복합을 해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확장된 개념의 가치투자를 해보자는 목적으로 사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했습니다.

박 :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기존의 행동주의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 : 최근에 보시면 한진칼 이슈가 있었잖아요. 국내에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기업의 지배구조가 미흡하다든지 투명성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 기업 주식을 사서 기업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다든지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률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다소 공격적인 형태이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행동주의는 다른 콘셉트예요. 우리는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기업의 친구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업에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요. 컨설팅을 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극도의 우호적인, 착한 행동주의 펀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ESG, 역발상 ESG를 가미를 하고, 행동주의는 우호적이고요. 진화한 형태의 가치투자 등 모든 것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 : ESG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환경 기업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이 : 자본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에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한 경영, 윤리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왜 ESG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들 보면 ESG가 거대 자본의 음모다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력 즉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세상을 군사력과 권력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자본, 경제, 산업,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고요.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존경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포장과 화장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ESG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이다. 기업들도 개인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 그러면 기업의 백기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 : 기업의 든든한 친구, 우군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할 것입니다.

박 :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예전에 친구이다와 같은 기업도 별개로 봤어요. 그런 기업을 알아보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 : 사회 초년생들이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1000만 동학개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구요. 공부를 좀 하고, 다양한 자본시장이나 주식 관련된 책을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 고민을 해야할 것 같고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에 전략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과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 기법을 먼저 찾으셔야 해요. 모멘텀 투자일 수도 있고요. 차트에 맞춘 투자도 있고요. 기본적, 기술적 분석 등 수 백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접해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해요. 화려하고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니거든요. 일단 치수가 맞아야 하고, 내 몸에 맞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최고의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성도 봐야하고요. 왜냐면 어떤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인 3가지인데요.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이에요. 안정성은 자산가치, 수익성은 수익가치, 성장가치는 성장가치.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것인데요. 몇 개 저평가 된 주식을 찾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또 분석을 해야합니다. 왜 저평가 돼 있는지를 봐야죠. 비즈니스 모델, 수명, 지배구조 등을 분석해서 조사도 해보고, 주변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해서 종목을 골라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좋고, 기업가치가 좋으면서 저평가 된 기업을 찾아야지만 된다.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ㅎㅎ



글 | ClubD MAGAZINE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 미국 3대 골프 매거진 GOLF Inc. KOREA 커버 게재
“디테일의 차이가 승부를 가릅니다”라는 주제로 클럽디(ClubD) 소개



국내 유일의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이도(YIDO)의 최정훈 대표이사가 미국 3대 골프 잡지 GOLF Inc. KOREA의 10월호 커버스토리로 게재됐다. GOLF Inc는 골프장 개발 및 경영, 운영, 마케팅, 코스 관리 등 골프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전문 매체로 격월로 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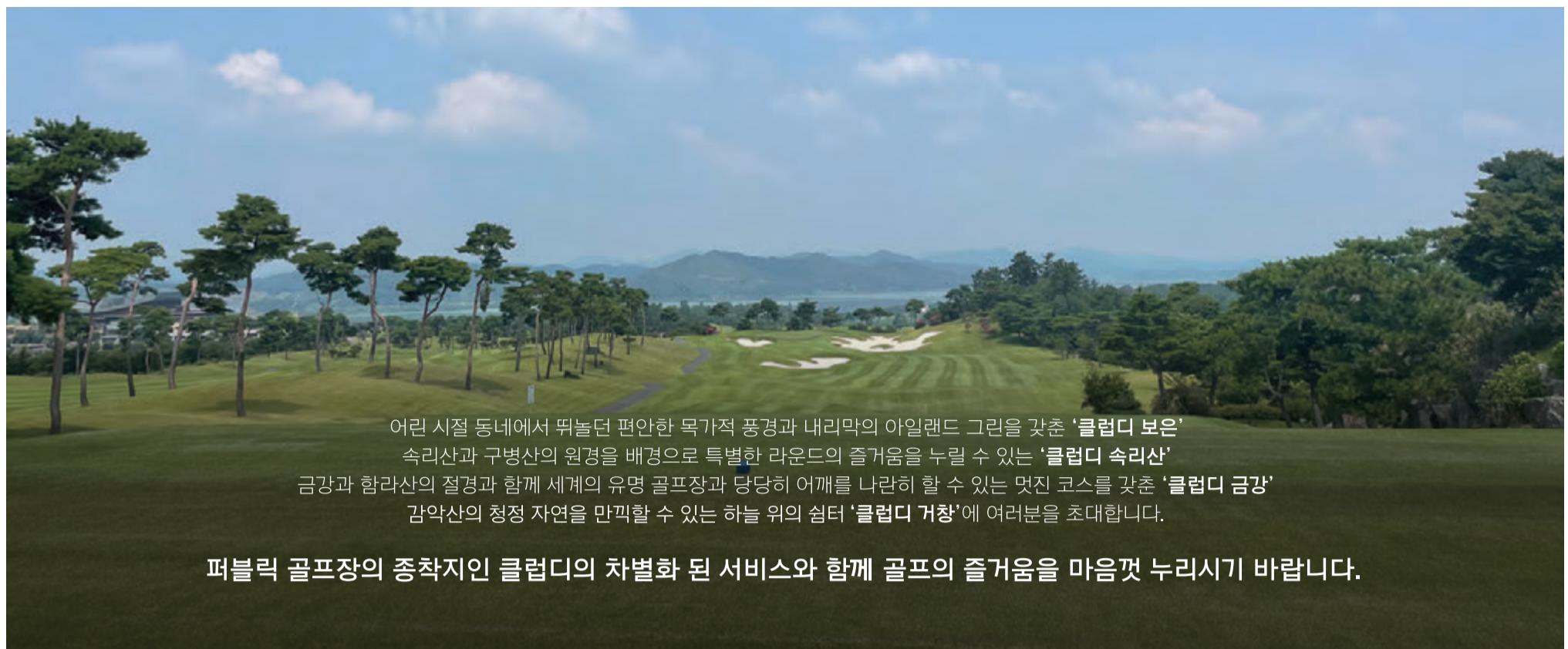
GOLF Inc는 2021년 10월호 커버스토리에 ‘디테일의 차이가 승부를 가릅니다’라는 주제로 이도의 밸류업 전략 및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 그리고 40대 젊은 CEO로서 최정훈 대표이사를 소개했다. 해당 잡지는 이도에 대해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이라며 “2014년 6월 창립 이후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강소기업이자, 40대 젊은 오너가 진두지휘하는 K 골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대왕 당시 한글은 물론이고 많은 혁신적인 제도와 과학기술이 만들어져 백성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처럼 (주)이도 역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회사로 도약하자는 포부가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최정훈 대표이사의 앞으로 계획 및 목표와 관련해 “우선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장 전문 운영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총 99홀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50개 정도의 골프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라고 게재했다. 이어 “외형적인 확장과 더불어 골프 문화를 선도하는 K 골프만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그 일환으로 ‘골프장 운영 IT 솔루션’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차별화된 라운지와 리무진 스타일의 고급형 골프 카트, 여성을 위한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비치 등 MZ세대의 취향과 차별화된 골프 문화를 느끼고 싶은 골퍼들에게 클럽디(CLUBD)만의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골프를 즐기는 20~30대 젊은 골퍼들에게 ‘인스타 맛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트렌디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의 골퍼가 골프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로 거듭나고 싶은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최근 리뉴얼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고객 맞이에 분주한 4번째 골프장 클럽디 거창의 경쟁력과 관련해선 “구름도 쉬어가는 하늘 위의 쉼터라 불릴 정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 봅니다. 감악산으로 둘러싸인 풍경, 특히 일몰 시각의 풍경이 장관”이라며 “그와 함께 모던한 클럽하우스와 세련된 라운지, 테니스코트 등 아마 기존의 골프장을 많이 다니셨던 골퍼들이라면 전통 클럽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 ClubD MAGAZINE

국내 주요 경제 매체 매경이코노미, 영업이익 강소기업에 (주)이도 ‘조명’
“ESG 중시될수록 이도 가치 부각” 주제로 소개

국내 주요 경제 매체 주간지인 매경이코노미가 영업이익 강소기업으로 국내 유일의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에 대해 조명했다. 이 매체는 2021년 9월 호에 폐기물 처리·골프장 캐시카우‘라는 주제로 이도의 급성장을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이도가 골프장, 기숙사, 폐기물 처리 업체 등 개발부터 통합관리까지 해주며 사세를 키우고 있다”며 “그 덕에 2018년 매출액 744억 원, 영업이익 66억 원이던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814억 원, 영업이익 2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도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전문 금융사 시각으로 사업에 접근한다”며 “사내에는 BE(Business Engineering) 그룹이라는 독특한 조직이 있는데 대부분 대체 투자, 금융 전문가로 구성돼 부동산 내부수익률, 사업성 분석, 투자 구조 수립, 금융 조달, 인수합병(M&A) 등 증권사의 IB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쟁 업체가 눈여겨보지 않는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수익성을 높은 자산을 선별, 발굴해왔다”며 “단순히 직간접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첫 O&M 업체답게 20~30년의 장기 운영관리 사업권을 확보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쓴다”고 강조했다. 해당 매체는 마지막으로 대기업에서도 이도와 비슷한 전략을 쓰며 따라올 수도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 “기존 폐기물 사업을 예로 들면 군소 업체가 난립했던 시절에는 오히려 지자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높아진 데 비해 처리 능력은 떨어졌다”며 “ESG 경영에 부합하면서 해외처럼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면 시장 규모가 덩달아 커지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2018년 16조 7000억 원에서 2025년 23조 7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 혼합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방식을 갖춘 이도처럼 차별화한 회사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 ClubD MAGAZINE



※ 인터넷 통합 회원가입 필수입니다
※ 전화예약, 클럽디거창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예약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타 에이전시 및 채널 예약 시 적용 불가)
※ 타 이벤트의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ClubD 우수캐디

전주영 ClubD보은(경력13년) 활수경 ClubD속리산(경력7년) 김지혜 ClubD금강(경력16년) 신수정 ClubD거창(경력6년)

프라이빗 이동 서비스, 무브
기사포함 전용차량으로 골프장부터 출장까지

MOVV GOLF
무브 골프
Tel. 1877-2025

MOVV BIZ
무브 비즈니스
Tel. 1877-2024

일행 모두 **집집마다** 모시려 가고!
라운딩 후 즐음운전 걱정 없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뒷풀이**도 다함께!

여러 장소도 '**Door to Door**'로 편리하게!
KTX+무브로 전국 어디든 편안하게!
KTX예매시 역에서 목적지까지 **무료픽업!**

safeD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Contech Future Leader 산업안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공종 Big-Data
표준공종 260종 참조 30,000 Case 위험요인,
안전대책 Database 제공

Mobile 위험성평가
PC ↔ Mobile 실시간 연동
One-Click 충점점검 → 안전조치 SMS 작업알람

Google 디국어 번역
안전교육, TBM, 공지사항 주요 19개국어 실시간 번역
구글 인공지능, 120개국어

BEACON 위험경고
작업자 위치 파악 위험을 접근 경고
실내/지하/터널 감지

GPS 작업동선 분석
근로자 작업 경로 분석 위험지역 설정

yido.com/business/safed
YIDO INNOVATIVE VALUE-UP PLATFORM

제주를 담은 제주를 담은 제주맥주

jejubeer@jejubeer.co.kr www.jejubeer.co.kr @jejubeerofficial @jejubeerofficial
BREWED IN JEJU, KOREA JEJU BEER COMPANY

클럽디 보은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안내 info_boeun@clubd.com 전화 043-540-8888
예약 booking_boeun@clubd.com 팩스 043-540-8889

클럽디 속리산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단부면 평각상장로 230
안내 info_songnisan@clubd.com 전화 043-540-8000
예약 booking_songnisan@clubd.com 팩스 043-544-9600

클럽디 금강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안내 info_geumgang@clubd.com 전화 063-720-7700
예약 booking_geumgang@clubd.com 팩스 063-720-7799

클럽디 거창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안내 info_geochang@clubd.com 전화 055-945-2222
예약 booking_geochang@clubd.com 팩스 055-945-6060



www.clubd.com

CLUBD